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3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1.01~2026.01.07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새해, 미래, 성장, 기반, 성과
경제·관광	수입, 성장, 관광객, 기반, 감귤
지역·사회	도로, 새해, 병원, 구조, 눈

※ 분석 기간 : 26.01.01.~26.01.07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선 8기 성과 확산 및 미래 비전 제시지방선거 대비 각 정당의 필승 전략 가동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 산업 육성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2035 탄소중립 비전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청년 정착 지원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1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조수입 5조 원 시대관광산업의 질적 도약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상장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물류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 구축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과 자치 분권 기반 완성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내외적 위기 극복과 경제 지표 호조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도민 자긍심 고취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과 행정 서비스 혁신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대책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저 기록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키스, 중국 시장 수출 확대 - 제주TP, 바이오 산업 육성 - 제주은행, 디지털 금융 혁신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관광객 1384만 명 달성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전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 - 농업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 -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 기반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대응 전략 - 농가 불안 및 유통 질서 확립 호소 - 브랜드 가치 및 가공 산업 고도화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 결빙 산간도로 통제 - 우도 불법 유상 운송 횡행 -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
	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이송 중 새해 첫동이 - 한라산 정상 해맞이 인파 - 법원장의 새해 사법 서비스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성과 - 전문화와 스마트 병원 도약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구조 - 모슬포항 주락 남성 구조 - 카약 침수 사고 구조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 - 제설 작업 및 비상 대응 -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1월 1일~1월 7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697건임
 - 정치·행정 분야 294건, 경제·관광 148건, 지역·사회 25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새해, 미래, 성장, 기반, 성과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 · 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정치 · 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새해	<p>- 민선 8기 성과 확산 및 미래 비전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을 민선 8기 도정의 성과를 도민의 삶으로 확산시키는 해로 규정하고, '제주 먼저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AI, 우주산업,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지난해 달성한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돌파, 관광객 수 반등, 고향사랑기부금 100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탐나는전 발행 확대, 지방채 활용 건설 경기 부양, 제주가치돌봄 지원 기준 상향 등 도민들이 체감
-------	----	---

	<p>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안정 정책 추진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선거 대비 각 정당의 필승 전략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제주 발전'을 기치로 내걸고 원팀 구성을 강조하는 한편, 오영훈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문대림, 위성곤, 송재호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치열한 당내 경선 예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현 도정의 실정을 비판하며 '민생 회복'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고기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기획단을 발족하여 인재 영입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조직 정비 및 세 결집 돌입.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행정력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는 새해 첫 간부회의를 민생 현장에서 개최하고 재정 신속 집행 TF팀을 가동하여 상반기 내 주요 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부양과 골목 상권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목표 설정. 서귀포시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서귀포 스포츠 패스' 도입 등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극대화에 나서며,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새해 주요 도정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방침.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에너지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존 관광 및 1차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을 계기로 위성 개발 및 제조, 발사, 관제 등 우주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벤류체인을 구축하고,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에 주력하여 제주를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 구체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2035 탄소중립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5년까지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반 구축, 분산에너지 특구 활성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하여 청정 제주의 미래 가치를 보전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 도시 위상 정립. 도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를 구상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도민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청년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 중심으로 전환

	미래	<p>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 안정, 일자리 매칭, 교육 기회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연구원은 2026년을 향후 30년 미래를 위한 '전면적 대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 연구 기능을 강화하며, 도민과 소통하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미래 정책 제시 주력.
정치·행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조수입 5조 원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플랫폼 '제주DA'를 구축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 강화 및 물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1차산업 조수입 5조 원 시대 개막 견인. 제주산 농축산물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1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정책 역량 집중.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관광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단순 방문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워케이션, 렌케이션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지역 내 소비 증대 유도. '2026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를 선포하여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테마별 관광 상품을 발굴하고, 디지털 관광증 도입 및 교통 편의 개선 등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제주 관광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상장기업 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지역 경제의 규모를 키우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망 향토 기업의 주식 시장 상장을 적극 지원하고,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신성장 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전략. 제주테크노파크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기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형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주력.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중국 칭다오 간 화물선 직항로 운항을 안정화하고, 도내 항만 시설 확충 및 내륙 물류 거점 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물동량 처리에 최적화된 물류 기반 시설 구축 추진.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BRT(간선급

정치·행정	기반	<p>행버스체계) 고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고, 수소 버스 도입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친환경 교통 수단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 교통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촘촘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가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고,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및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서귀포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 및 민관 협력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 안전망 강화. -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과 자치 분권 기반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및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하여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 분권 및 특별자치도 완성 기반 마련 추진.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주민 투표 실시 등을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민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치 행정 시스템 기반 구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적 위기 극복과 경제 지표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입 확충 성과를 거두고, 고용률 유지 및 관광객 수 회복세 전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이끌어내며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 입증. · 제주의 주력 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역내총 생산(GRDP) 성장률을 견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연관 산업의 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제주의 경제 편더멘털을 강화했다는 평가. -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도민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사건의 아픈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킨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냄으로써 4·3의 세계화 및 인류 보편적 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성과 달성을 과거사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 제시. ·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서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포럼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세안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제주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성과 창출. - 도민 체감형 정책 추진과 행정 서비스 혁신

정치·행정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가치돌봄', '15분 도시 제주'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 행정 도입 및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성과 도출. 적극 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및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도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여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임으로써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의미 있는 성과 달성.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입, 성장, 관광객, 기반, 김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FTA에 따라 올해부터 미국산 만다린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 물량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공격적 마케팅과 고품질 생산 체계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를 포함한 3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시장 주도권 확보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함. 만감류연합회 등 농민 단체는 수입 급증 시기와 제주 만감류 출하 시기가 겹

	<p>쳐 가격 하락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유통인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 확산 자제를 당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저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5% 급감하여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계 자본의 이탈과 투자이민제도 개편에 따른 투자 매력도 저하가 주원인임. · 제주도는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 상향과 대상 시설 제한이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분야로 투자 이민 대상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하여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모색함. - 제주-칭다오 항로 물동량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전담팀 회의를 열어 제주-칭다오 직항화물선의 물동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 용암해수 등 제주 핵심 산업과 연계한 수출 물동량 발굴 및 내륙항 경유 물량의 직항 전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항로 개설 이후 수출 물동량이 저조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산둥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초기 물류비 부담 완화 및 통관·검역 애로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항로의 안정적 정착과 중장기적인 물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함.
경제·관광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키스, 중국 시장 수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토종 제과기업인 제키스는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하여 현지 대형 유통 채널 파트너사와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추진함. · 정기범 대표는 이번 성과를 통해 중국 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새해에는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신제품 출시와 글로벌 제품 정보 확대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할 계획을 밝힘. - 제주TP, 바이오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해 5개의 대형 국책과제 유치로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AI, 푸드테크 등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조성을 가속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함. · 어류 부산물과 미이용 해조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원료 생산 기술 6 종을 확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수산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새로운 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성장을 기대함. - 제주은행, 디지털 금융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은 '2030 디지털제주'를 핵심 경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 체계를 넘어 전국을 향한 디지털 기반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ERP 뱅킹 사업 모델 구체화 등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라지점과 남원지점을 고객 중심 영업점으로 전환하여 고령층 등 금융 취약 계층의 편의를 높이고, 실적보다 신뢰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함.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관광객 1384만 명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1384만 명으로 집계되어 4년 연속 1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국제선 확대와 크루즈 활성화로 외국인 관광객이 17.7%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함. 상반기에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고전했으나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뚜렷 해져 연말 누적 기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제주도는 이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회복세로 평가하고 관광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낙수효과 제고를 위해 15인 이상 일반 단체, 수학여행단, 해외 마이스 참가자 등에게 1인당 일정 금액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도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함. 지원금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여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서의 소비를 유도하며, '2026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함. -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체류형·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더-제주 Four Seasons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객이 제주에 오래 머물며 고유의 가치를 소비하도록 유도하여 비수기 없는 사계절 관광을 실현하고자 함. 워케이션, 런케이션 등 장기 체류형 상품을 고도화하고 마을 주도 농어촌 관광 및 웰니스 관광지 육성을 통해 지역과 계절의 매력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글로벌 기준의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추진 중인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함.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을 활용하여 위성 제조, 지상국 운영 등 우주 관련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제조-운영이 결합된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제주형 우주 경제 영토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함. - 농업 생산 및 유통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는 감귤 및 밭작물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14억 원을 투입하여 FTA기금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스마트팜 보급, 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하며, 기후 변화와 인력난에 대응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함.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은 김승만 신임 대표이사 선출을 계기로 농업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품목 중심의 생산·유통 계열화를 통해

	<p>채소류 통합 마케팅 2000억 원 달성을 위한 유통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함.</p> <p>-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48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전환 가속, 분산에너지 활성화, 재생에너지 다변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P2H 사업과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생활 속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함. ·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풍력 사업과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이행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계기로 전력증개거래사업 확대 등 새로운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경제·관광	<p>-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대응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대응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시장 선점, 고품질 중심의 생산 체계 전환, 데이터 기반 수급 및 가격 관리 강화라는 3대 전략을 수립하고 감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임. · 설 명절 등 프리미엄 선물 시장을 겨냥한 유통 전략 고도화와 산지 직송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완숙과 출하 장려 및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제주 감귤의 맛과 신선도를 무기로 수입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꾀함. <p>- 농가 불안 및 유통 질서 확립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감류연합회는 호소문을 통해 미국산 만다린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시장 불안 조성을 경계하며, 농가에는 미숙과 출하 자체와 고품질 생산을, 유통인에게는 산지 거래 질서 유지를 강력히 당부함. · 일부 유통업자들이 무관세 수입 소식을 악용해 농가에 저가 매입을 시도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농민 단체와 정치권은 정부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과 수입 시기 조절을 요구하고 나섬. <p>- 브랜드 가치 및 가공 산업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의 브랜드 '불로초'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감귤 부문에서 1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함. · 서귀포시는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과 스마트 APC 구축 등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고, 제주개발공사는 감귤 1공장에 AI 자율제조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기반의 가공 혁신을 통해 감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임.
감귤	

- 지역 · 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도로, 새해, 병원, 구조, 눈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 결빙 산간도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만 허용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루어짐. · 중산간 이상 지역의 결빙과 적설로 인해 번영로, 남조로 등 주요 도로에서도 소형 차량은 체인을 장착해야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 - 우도 불법 유상 운송 횡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도 내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으나, 현장 적발 시 지인이라고 속이는 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음. · 골프 전동카트 대여업체들이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미등록 카트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제주도와 경찰이 수차례 고발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 중임. - 눈길 미끄러짐 교통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트럭이 돌담을 들이받거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도내 곳곳에서 잇따름.
-------	----	---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시와 제주시 주요 도로에서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차량 추돌 및 이탈 사고가 다수 접수되어 119 구급대가 출동해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지역·사회	새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헬기 이송 중 새해 첫등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응급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를 소방헬기 '한 라매'로 이송하던 중 헬기 안에서 새 생명이 무사히 탄생하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함. 제주시내 산부인과에서 조기 양막 파열로 긴급 이송을 요청받은 소방당국이 헬기를 투입했으며,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상공에서 기적적인 출산이 이루어짐. 한라산 정상 해맞이 인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는 새벽부터 야간 산행에 나선 수많은 탐방객이 몰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함.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은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서로 덕담을 나누고 환호하며 희망찬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만끽함. 법원장의 새해 사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홍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신년 인터뷰를 통해 정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권리를 지키는 세심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업무 혁신을 지속하고, 가정 및 소년 사건 등에서 회복과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여 갈등을 넘어 화해로 나아가는 법원의 역할을 강조함.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은 2026년을 맞아 제주 의료 자치 실현과 중증 질환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도내 의료기관들은 시설 확충과 전문 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육지로 나가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대학교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보건복지부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중증 소아 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진료 기반과 의료 서비스 질을 인정받음.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공간 리모델링 및 최신 장비 도입을 지속하며, 제주 지역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계획임. 전문화와 스마트 병원 도약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병원은 관절, 척추, 뇌신경 등 특화된 전문 센터를 육성하고 웨어러블 기기 및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함. 진료 영역의 깊이를 더하고 내외과 분야의 전문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병원 인프라 확장 및 주차 편의 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려 함.
지역·사회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몰 어선 승선원 전원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삼양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침수 후 침몰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선장과 외국인 선원 등 승선원 3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됨. 사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선미만 남기고 가라앉는 배에서 표류 중이던 선원들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 조치함. - 모슬포항 추락 남성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슬포항에서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을 인근 수협 직원들이 발견하고 밧줄을 던져 초기 대응을 했으며, 출동한 해경과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게 구조함. 목격자들의 빠른 신고와 침착한 대처 덕분에 익수자는 저체온증 외에는 큰 부상 없이 구조되었으며, 해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함. - 카약 침수 사고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 인근 해상에서 카약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로드' 앱을 통한 신속한 신고로 해경이 출동해 전복된 카약을 붙잡고 있던 남성을 구조함. 구조된 남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큰 화를 면했으며, 해경은 민간 구조대와 협력하여 사고자를 육상으로 이송하고 카약을 예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완료함.
	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전역에 내린 많은 눈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이 결항되거나 지연되었으며, 신호등 파손 및 간판 흔들림 등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잇따름. 산지와 중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고, 도심 곳곳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됨. - 제설 작업 및 비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는 대설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평화로, 1100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 작업을 24시간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새벽 제설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도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결빙 구간에 대한 집중적

지역·사회	눈	<p>인 안전 관리를 주문함.</p> <p>- 기후 변화와 이상 기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방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는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를 기록한 반면, 겨울철에는 폭설이 집중되는 등 극심한 기후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위기 징후는 농작물 재배 환경 변화와 해수면 온도 상승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